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0. 12. 30.(수) 10:00 <b>배포일시 후</b> 보도 가능합니다.		
<b>환경보전국</b>	<b>보도자료</b> PRESS RELEASE	산림휴양과장	이창흡	☎ 710-6760
		산림휴양팀장	지경찬	☎ 710-6761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## 2021년 산림·도시숲 예산 577억 원 투자

- 탄소 흡수원 확충, 도시녹지환경 구축, 임업인 소득 안정망 확보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산림 녹지분야에 예산 577억원을 투자한다. 청정제주의 산림에서 탄소 흡수원 확충 토대를 늘려나가고,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녹화와 저성장 시대 제주임업의 소득을 향상시키고, 산불 등 산림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였다.
- 제주특별자치도 산림 녹지분야의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41억 원(7.6%) 증가한 577억 원 규모다. 내년 예산은 산림분야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도시숲 예산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 숲가꾸기 및 조성, 산림경영기반 확대,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확대하였다.
- 산림에서 탄소 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청정제주를 선도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.
  -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2,550ha의 산림에 실시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능력을 높여나가며,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산불 예방(29개 사업), 기후변화 등에 따른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(4,120ha)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, 산림재해부터 자유로운 청정제

주를 보호해나갈 계획이다.

- 도시열섬 현상 저감과 도민 휴식공간 제공 등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.
  -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(15ha)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, 도시 내외곽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  
- 제주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원 지원,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가하였다.
  - 제주지역 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·관·학이 협력하여 제주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.
  
- 또한,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  - 산불예방진화대·감시원(245명), 산사태현장예방단(4명),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(12명), 산림서비스도우미(35명) 등을 채용 각종 산림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, 전문산림기술인 양성을 위한 산림기능인 양성교육(40명)을 실시하여 제주지역내 전문산림기술인을 배출해 나갈 예정이다.
  
-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“탄소 온실가스 흡수원이 되는 산림을 잘 가꿔나가는 나가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코로나 19에 지친 도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